

# 광주시교육청, '2021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

내달 3일부터 29일까지 고3 학생·학부모 대상

하루 3시간 30분...1인 1회·1회당 40분씩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8월3~29일 21일 동안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2021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을 운영한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 상담은 사전 신청한 고3 학생 및 학부모 5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3~28일 하루 3시간 30분 동안 1인 1회, 1회당 40분씩 운영한다.

2021학년도 수시 대비 집중 상담 마지막 날인 8월29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학교 밖 청소년과 졸업생만 상담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상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학교별 상담 날짜를 지정해 사전 신청을 받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

상담 신청은 오늘 오후 5시30분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광주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http://jinhak.gen.go.kr/>) 메인 화면의

'수시집중상담'을 클릭 후 학교별 지정된 상담 날짜를 확인해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면 되고 선착순이므로 신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은 진학 전문가와 함께하는 고3 수험생 맞춤형 상담이다.

다년간 진학 경험이 많은 현직 진학 전문 교사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질 높은 개인별 맞춤형 진학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시 고3 학생은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표, 학교생활기록부 등 상담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상담을 통해 고3 학생은 40만 건 이상의 대입 합격·불합격 사례를 누적한 광주 대입 상담 프로그램 '빛고를 울리고'를 활용한 수시모집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우재학 과장은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고3 학생들의 상담은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시교육

청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우리 지역 진학 전문 교사를 위촉해 만족도 높은 수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민주시민의 발자취를 경험하다

전남교육청, '남도민주평화길' 체험학습 자료집 발간 추진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의 역점과제인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남도민주평화길' 후속편 작업에 돌입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7월 13일(월) 레이디스 세미나실에서 '남도민주평화길' 체험학습 자료집 발간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TF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자료집은 올해 초 발간된 22개 시·군 대상 '남도민주평화길'을 보완한 것으로 민주평화길 성격을 갖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동 시 해당 지역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동학 농민혁명, 한말의병, 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등으로 이어진 민주주의의 현장 탐방지와 연계해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나주, 목포, 화순 지

역 편부터 자료집을 발간하고, 연차적으로 22개 시군으로 확대해 교사와 학생들이 손쉽게 만나는 전남 지역 역사민주평화길로 자리잡게 한다는 방침이다.

발간위원은 역사전문가와 현직 교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의 체험활동 자료집 속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체험학습 자료집으로 완성하기 위해 나주, 목포, 화순 지역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위원들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자료집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전남지역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전남지역 민주시민의 발자취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료집 발간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향후 22개 시·군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자료집을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순천대 '2020 연구 우수 교원 간담회'

산학협력 모범사례 창출·지역기업체·상생발전 앞장

순천대학교가 최근 2019년 한 해 동안 우수한 연구실적으로 학교발전에 이바지한 재직 교수 15명과 '2020 연구 우수 교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초청된 교원은 순천대의 새로운 연구 분야 개척 및 우수한 산학협력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지역기업체와 상생발전에도 앞장선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19년 순천대학교가 수상한 약 516억 연구비 실적 달성이라는 성과에 크게 기여하였다. 2020년 순천대 연구 우수 교

원은 △원예학과 노일섭 △약학과 백만정 △사학전공 이종수 △환경교육과 허재선 △생물학과 김대현 △원예학과 박종민 △인쇄전자공학과 곽준섭 △동물자원과학과 양철주 △동물자원과학과 이상석 △농업경제학과 송경환 △인쇄전자공학과 표명호 △동물자원과학과 조용일 △환경공학과 정성철 △화학공학전공 문일식 △우주항공공학전공 이기만 교수 등 15명이다.

선정된 연구 우수 교원 가운데 약학과 백만정 교수는 2015년부터 기초 연구실사

업 통합 오픈스 연구실의 연구책임자로서 국내 나노 독성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예학과 노일섭 교수는 2013년부터 GSP 원예종자사업단장으로 10년간 수출전략형 종자 개발 및 수출달성을 목표로 국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은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하여 대학 발전에 이바지해 연구 우수 교원 선발되신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양적·질적으로 뛰어난 연구 성과를 성취한 교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장석웅 전남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14개월 연속 선두

취임 후 24개월 평균 긍정평가 54.1% 전국 1위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14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며 인기 4년의 반환점을 돌았다.

14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장석웅 교육감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실시한 주민직선 3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의 2020년 6월 직무수행 평가에서 57.9%의 지지를 얻어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연속 1위를 달렸다.

2018년 7월 1일 취임 후 줄곧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해온 장 교육감의 지지율은 취임 2년째인 6월 조사에서도 굳건하게 선두를 지켰다. 2위(46.8%)와 11.1%p 차의 격차를 1위이며, 50%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사람도 장 교육감이 유일하다.

또 장 교육감에 대한 전남도민의 24개월 평균 지지도 역시 54.1%로 17개 시도교

육감 전체의 24개월 평균 값 42.3%보다 11.8%p 높은 1위이다.

이는 취임 2주년을 맞은 장 교육감이 그간 추진했던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 정책의 성과가 드러나며 도민과 전남교육 가족의 공감과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학생의 올곧은 성장과 변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학생과 교실을 중심에 놓는 교육에 매진한 결과 현장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높은 지지율로 이어졌다는 평이다.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전국 최초 학교지원센터 구축,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운영, 에듀택시 도입,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 등이 그 대표적 성과이다.

또, 참여와 소통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

고 교육현장에 민주적 조직문화를 심은 점도 도민들이 공감하는 장 교육감 취임 2년의 변화상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라는 위기 국면 속에서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순차적 등교수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도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전남미래교육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나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남 미래교육을 앞장서 맞이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한 점이 큰 공감을 산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도민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전남교육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데 헌신과 열정으로 힘을 보태주시는 교직원과 학부모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